

가계내 재산상속이 상속인(자녀세대)에게 미치는 영향

정 주 원*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강사)

박 명 희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핵가족화로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계내 재산상속이전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연결지어 주는 경제적 연결고리로 분배의 방법과 분배의 시기, 분배량에 따라 세대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가족간 재산상속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산상속이 상속인(자녀세대)에게 미치는 의미와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간 상속경험이 있는 자녀세대(상속인)를 대상으로 재산상속을 통해 나타나는 태도와 의미,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족유대관계 변화와 감정변화 그리고 재산상속에 대한 의미와 상속후 가계재무관리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2000년 6월-8월간 세대간 재산상속경험이 있는 자녀세대(상속인) 7명(총 10사례 : 처가족 상속 3사례 포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면접내용은 녹음기로 녹취하였으며 면접후 녹음된 면접내용을 다시 풀어쓰는 작업을 하여 연구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상속의 일반적 태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상속동기, 상속인의 범위, 상속분·상속내용의 차이, 사회환원에 대한 태도, 미래 상속의지에 대한 결과이다. 먼저 상속동기를 살펴보면 유언상속의 기피와 부모의 건강악화로 인해서, 상속세 절감을 위해, 자녀에게 노후를 의탁하기 위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속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속인의 범위는 장남 및 아들중심 상속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딸을 상속인에 포함시킨 아들·딸 공동 상속은 4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상속분·상속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장남단독 및 장남우대상속이 나타나고 있으나 차남우대 상속과 아들·딸 균분상속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환원에 대한 태도에서는 사회환원 대신 가족간 자녀 상속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세대의 미래 재산상속 태도를 알아보면 자녀세대 역시 자신의 자녀에게 세대간 상속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상속인 선정과 상속분에 대해서는 딸도 상속대상에 포함시키고 아들과 거의 동등하게 상속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둘째, 상속을 통해 나타나는 가족관계 변화로 대부분의 가계는 재산상속을 하며 가족간의 갈등과 부모-자녀 및 형제간 유대관계 변화 그리고 감정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상속을 하기전 가족관계는 상속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비교적 원만하고 표면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으나 상속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자녀 관계 및 형제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갈등이 심한 사례에서는 가족유대관계가 단절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상속인(자녀세대)에게 재산상속이란 부모부양의 의무감이나 가계계승의 의미보다 장래 상속후 사회경제적 적응력과 자산 향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상속을 많이 받은 사례에서는 상속후 상속인(자녀세대)은 가계의 소비 증가, 저축의 필요성 인식 약화라는 부적인 결과와 함께 의존적이고 비계획적인 재무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산상속후 상속으로 변화된 자산을 관리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리 능력 학습이 자녀세대에 요구되어진다.